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의 몇가지 형상적기능

리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는 인물의 사상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와 함께 작가자신의 감성적인 태도를 통하여서도 정서를 양양시킬수 있다. 작품에 펼쳐지는 생활현상에 대한 작가의 감성적태도가 명백하고 열렬하고 예리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수 있다. 물론 그러한 감성적태도는 작가가 직접 토로하는 방법으로도 표현할수 있고 묘사대상 속에 굴절시켜 간접적으로 나타낼수도 있다.》(《김정일선집》 제16권 중보판 136페이지)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는 여러가지 형상적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하여 소설을 보다 감명깊게 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는 인물의 양양된 감정정서적체험분출의 표현형식이다.

소설의 주정토로에는 작가의 사상감정을 작가자신이 직접 표현한 주정토로와 등장인물을 통한 주정토로가 있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의 형상적기능은 무엇보다먼저 작품의 주제사상을 증폭시키고 정서적으로 체현시키는것이다.

주정토로는 주제사상을 증폭시키고 정서적으로 체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제사상을 증폭시키고 정서적으로 체현시킨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작품에 서술된 개별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얻어진 사상주제적 결론을 시대적인 높이에서 일반화한다는것이며 보다 강렬하고 깊은 여운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정서속에 오래동안 새겨지게 한다는것이다.

형상의 절정이나 작품의 마감에 주어지는 주정토로는 작품에 그려진 이야기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시대적인 높이에서 일반화, 전형화한다.

주정토로는 소설작품형상에서 작가의 시점을 빌어 작품의 주제사상을 보충적으로 해명해줌으로써 증폭시키기도 하며 작품의 주제사상이 보다 강렬하고 깊은 여운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정서속에 오래동안 새겨지게도 한다.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인 착취없고 압박없는 조국에 대한 사랑, 향토에 대한 사랑, 혁명전우에 대한 사랑, 일가친척에 대한 사랑, 아름다운 모든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전사들이 불을 뿜는 적의 화구를 눈뜨고 바라볼수 있으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새벽의 밤을 어떻게 진저리를 치지 않고 견디어낼수 있으며 매 걸음마다 적이 뒤를 죄는 적후천리길을 빠져나올수 있었겠는가.

사랑이야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현대적 대량살륙무기로 무장한 원수들을 앙가슴으로 맞받아나선 어질고 착한 사람들의 으뜸가는 무기였던것이다.》

(중편소설 《전사들》중에서)

중편소설 《전사들》에서는 박대우를 주인공으로 하는 인물집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쟁승리의 요인을 조국에 대한 사랑, 대중적영웅주의로 확인하고 우의 실패의 주정토로로써 그것을 조국해방전쟁의 시대적높이에서 일반화, 전형화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보다 정서적이며 깊은 사상적 여운을 안겨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의 사상에 대하여 오래동안 공감하고 심장속에 새기게 한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의 형상적기능은 다음으로 작품의 서정성을 높여주는것이다.

소설에서 주정토로는 작품에 반영된 생활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정서적체험의 산물이며 정서적태도의 개방이다.

주정토로는 전개된 생활묘사에서 양양된

작가의 사상감정을 걱정과 흥분속에 직접 표현하는것으로 하여 서정성이 매우 강하다.

주정토로는 우선 감정조직의 절정에 서서 양양된 정서를 폭발하는것으로 하여 감정적 분출이 매우 강하다.

그것은 주정토로가 인물의 사상감정과 생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감정적느낌에 기초하기때문이다.

주정토로는 생활에 대한 감정축적이 충분히 마련된것을 전제로 하여 형상의 절정에서 작가의 사상적충격을 정서적으로 뜨겁게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을 양양된 정서적 여운속에서 밝혀내며 형상전반의 정서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주정토로는 또한 일정한 생활내용의 축적된 감정정서를 탄력있게 돋구어주고 승화시킨다.

작품의 생활적계기들에서 그에 대한 작가의 심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걱정을 터치게 되는데 그것은 전개된 생활에서 흘러나오는 정서를 탄력있게 돋구어주고 여운을 줌으로써 형상전반의 감정적흐름을 질게 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정토로는 정서적특성과 그 형상적효과로부터 출발하여 소설에서 서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된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의 형상적기능은 다음으로 등장인물의 개성적성격을 보여주는것이다.

주정토로는 성격형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인물의 성격은 그의 외모나 생김새, 행동과 기질, 대사와 심리 등에서 표현된다. 여기에서도 성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것은 심리이다.

주정토로는 바로 이러한 심리의 구체적인 표현형태이며 따라서 등장인물의 개성적성격창조에 이바지할수 있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는 우선 인물의 초기성격과 마감성격, 성격발현과정을 특징지

어주는것으로써 인물의 성격형상에 이바지한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는 또한 인물의 성격의 변화발전을 직접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성격형상에 이바지한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의 형상적기능은 다음으로 소설의 극적견인력을 조성하는것이다.

소설의 견인력은 주인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을 보는 흥미가 하나로 결합될 때 생기게 된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는 우선 주인공에 대한 끊임없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태양에는 두가지 속성이 있다. 빛과 열이다. 금성장군님께서도 두가지 성품을 지니고 계시니 즉 빛나는 예지와 뜨거운 사랑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 그것은 곧 태양의 빛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사랑, 그것은 곧 태양의 별이다.

그 광휘로운 빛과 따사로운 별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는 인간세계의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이시다!)

강령을 그대로 채택할것을 지지결정하는 우렁찬 박수속에서도 리동백은 자기 머리속에 떠오른 그 생각에 더욱더 깊이 잠겨들었다.

(장군님께서 계시여 캄캄했던 조선혁명의 앞길이 저렇게 환히 밝혀졌고 민족재생과 번영의 광명한 미래가 내다보이게 되었다!

그이의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어둡던 삼천리강산에 려명이 밝아온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사람들은 소생하고 삶의 보람과 투쟁의 행복을 받아안았다.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저 얼굴들이 저렇듯 밝을수 있으며 저 눈들이 저렇게 반짝일수 있으랴?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을 받지 않는다면 못행성들이 그 무슨 빛을 내며 태양의 빛과 별을

받지 않는다면 만물이 무슨 삶을 영위할수 있
으랴?

우리는 광원이 없이는 빛을 낼수 없는 별들
이다. 태양이 있어야 빛을 내는 행성들이다.

못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듯이 우리는
그이의 두리에 뭉치고 그이를 옹위하며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백두산기
슌》중에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리동백의 주정토로는
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대한 공감을 불
러일으키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형상전반이 위대한 수령님
에 대한 상대인물들의 신뢰와 흠모, 경탄의
주정토로로 전진하여 줄거리에 건인력을 지
어주고있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는 또한 사건발전
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등장인물들의 내면독백을 통한 주정토로
는 매 인물들의 행동의 지향선을 로출시켜
주고 이로부터 지향선들의 교차와 호상련관
에 대한 독자들의 예상을 불러일으켜 사건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이야
기줄거리의 탄력을 보장하게 된다.

줄거리의 탄력을 보장하는데서 대표적인
수법인 뒤집기도 이런 방법으로 실현할수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소설
로 옮긴 장편소설《꽃파는 처녀》에서는 주
인공 꽃분이의 주정토로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행복을 꿈꾸는 꽃분이의
지향선을 로출시키고 여기에 그와는 모순되
는 착취사회현실 즉 꽃분이의 지향이 하나
씩 허물어지는 과정을 펼쳐나감으로써 사건
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와 예상을 강하게 뒤
집고 커다란 정서적감화력을 안겨주고있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의 형상적기능은
다음으로 감정조직을 심화시키는것이다.

감정조직에 기초하여 이야기줄거리의 흐

름새를 짜나가는것은 소설의 흥미와 극적건
인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그것은 이야기줄거리의 흐름새를 감정조
직선으로 일관시켜야 소설전반에 서정성을
부여할수 있기때문이며 그것이 소설작품의
극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소설의
극적건인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
기때문이다.

주정토로는 우선 갈등의 심화로써 감정조
직을 심화시킨다.

갈등심화수법은 갈등에 의하여 주인공에
게 시련과 난관이 부단히 덧쌓이게 하는 방
법과 주인공의 내적체험을 강화하여나가는
방법으로 실현한다.

주정토로는 등장인물의 내면독백을 통
하여 갈등을 직접 표현하고 유도함으로써
서로 폭발의 대결점으로까지 승화시켜나
간다.

주정토로는 갈등이 내적모순에 체현되도
록 함으로써 감정조직의 축적과 폭발에 이
바지한다.

《내가 그른가? 공부도 있는 놈만 해야 하
나? 식구가 빌어먹게 집까지 팔면서 공부하게
한 죄가 뉘게 있니? 내게 있을가? 과연 내게
있을가? 아마 세상은 그렇게 알테지. 흥, 공부
를 하고도 먹을수 없어서 궁항에 들게 되니 이
것도 내 허물인가! 일을 하잖는대구? 무슨 일?
농촌으로 돌아간대야 내게 밭이 있나! 도회로
나간대야 내게 자본이 있나! 교사노릇이나 사
무원노릇을 한대야 좀 뽀로통한 말을 하면 단
박 집어세이고... 그러면 죽어야 옳은가? 왜 죽
어! 시퍼렇게 산 놈이 왜 그저 죽어! 살구멍을
뚫으다가 죽으면 죽지! 왜 그저 죽어? 세상에
먹을것이 없나! 입을것이 없나! 입을것, 먹을
것이 수두룩하지! 몇놈이 혼자 가졌으니 그렇
지. 있는 놈은 너무 있어서 걱정하는데 한편에
서는 없어서 죽으니 이놈의 세상을 그저 두
나!》(단편소설《기아와 살륙》중에서)

주정토로는 또한 역감정에 의한 감정축적
과 폭발을 통하여 감정조직을 심화시킨다.

역감정에 의한 감정축적이라는것은 폭발시켜야 할 감정과 상반되는 감정을 덧쌓아주는 수법으로서 주인공을 오해하는 상대인물의 역감정이 승화되다가 절정에서 급기야 진실을 확인하면서 주인공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환희로운 감정이 폭발하는 감정조직 수법이다.

여기서 주정토로는 상반되는 감정을 덧쌓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는 또한 감정굴절에 의한 증폭의 수법에서 위력한 형상수단으로 된다.

감정굴절에 의한 증폭의 수법이란 한 인물의 감정을 다른 인물의 감정세계에 굴절시키면서 감정을 증폭시키는 감정조직수법이다. 이 수법은 한 인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이 바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형상적효과를 얻는 수법이다.

감정굴절에 의한 수법에서 감정폭발은 주로 증폭된 감정을 받아안은 인물의 주정토로와 내면독백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에서 아버지를 일제의 《토벌》에 잃고 어머니가 슬퍼하니 다시는 아버지소리를 하지 말자고 하는 원남이와 갑순이의 대화를 듣게 되는 어머니의 주정토로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소설의 주정토로는 또한 작품의 절정에서 감정조직을 더욱 심화시키는 형상적기능도 수행한다.

여기서 기본은 주정토로가 갈등을 폭발에로 이끄는 본질적인 계기와 결정적인 투쟁이나 사건의 급전이 일어나는 정황을 잘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이다.

절정에서의 계기는 인물의 운명에 미치는 리해관계에 따라 주어진다. 다시말하여 갈등의 폭발점으로 되는 극적계기는 주인공의 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판가름되는 계기이다.

《웬 사람이 피못이 되어 땅바닥에 쓰러져있는데 그 가슴에 금순이가 매달리어 울부짖고 있었다.

갑룡이는 헉하고 놀라며 뒤걸음쳤다. 진창속에 네활개를 던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것은 분명 아버지였다. 그러나 갑룡은 아직도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째서 아버지는 저렇게 피못이 된 진창속에 시름을 잊은 사람처럼 누워계신단 말인가? 그리고 금순이는 무슨 일로 아버지를 부여잡고 통곡하는것이며 아버지는 눈을 번히 뜨시고도 아무것도 모르시는것일까? 그렇지, 아버지는 지쳐서 쓰러진게 분명하다. 그런데 왜 저렇게 놔두고들 있어!》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중에서)

주정토로에 의하여 썩여진 아버지가 희생되는 이 계기는 갑룡이에게 있어서 생의 목적으로 되었던 가장 절실한 운명문제가 파탄되는 계기인것으로 하여 갈등폭발의 본질적계기로 된다.

사건을 전개시킬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조건이며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실제적인 생활바탕인 정황을 마련하는데서도 주정토로는 자기의 뚜렷한 몫을 가지고 참가하게 된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의 형상적기능은 다음으로 작품의 지성도를 높이는것이다.

문학작품의 지성도는 한마디로 말하여 형상세계의 높이를 의미한다.

지성도가 높다낮다 하는것은 작품에 보통사람들이 알고있는것보다 얼마나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이 담겨져있는가,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올려다볼만 한 고상한 미의 세계가 개척되었는가, 형상기교와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작품의 형상세계가 높은가 낮은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주정토로는 새로운 철학세계를 펼쳐보이

는것을 통하여 작품의 지성도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생활의 귀중한 진리를 담은 심오하고 독창적인 내용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작품의 높은 지성도를 느낄수 있다.

작가는 모든 사람들을 깊은 사색의 세계에 이끌고갈만 한 심오한 문제성을 안고 있는 생활철학을 발견하고 이를 주정토로에 담아 밝히기도 하며 결과 작품의 지성도를 보장하고있다.

《불바다의 침단, 그렇다. 앞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적이 있을 뿐.

매 전사들은 자기가 맡은 7m구간을 목숨으로 지켜 적을 방어진지전원에서 소멸해야 한다. 그것이 곧 조국을 지키는 길이며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전사의 임무를 다하는 길이다. 뒤에 예비대가 있고 제2, 제3제대의 종심방어선들이 늘어져있다는것을 생각지 말라!

7m의 구간, 그것은 조국의 첫 성문의 문턱이나 다름없다. 첫 문턱에서 적을 무자비하게 죽쳐 기를 꺾어버려 놈들로 하여금 다시 기여들 엄두도 못내게 하라!

7m의 구간, 여기에서 자기의 젊음을 영예로

빛나게 하라. 여기에서는 모든것이 명백하고 예리하게 판가리될뿐이다. 승리와 패배, 삶과 죽음, 영예와 치욕 ... 참호, 여기에서의 공훈은 불멸의 메아리처럼 세월과 함께 영생하며 사소한 비겁이라도 그것은 씻을수 없는 치욕으로 남는다. 이것이 참호의 진리이며 화선철학이다.》

(장편소설 《돌파구》중에서)

소설의 주정토로는 높은 자주 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자주적인간과 그의 생활에 고결하고 숭고한 리상을 체현시켜 새로운 미의 세계를 개척함으로써 작품의 지성도를 높일수 있게 한다.

주정토로에 인물의 리지적인 성격을 옹계 반영하는것 역시 작품의 지성도를 높일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소설문학에서 주정토로는 이밖에도 작가의 문체적개성을 특징짓기도 한다.

소설창작가들은 주정토로의 형상적기능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천만군민을 최후의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나가야 할것이다.